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와의 교류회

대한산업보건협회장 이 승 한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는 조규상회장과 경도 공장보건회 이누이(乾 修然)소장 두분의 결성하여 1983년에 탄생한 모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여 두나라를 번갈아 오가면서 집담회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일본측 참가자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와 제기되었고, 여기에서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와의 교류안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국의 산업보건활동이 대체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단일 기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마다 유력한 산업보건단체가 있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들을 느슨히 묶고있는 전국조직으로서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당초에는 학술집담회의 전야제로서 늘 갖고있던 모임이 연합회와의 교류회로 발전하였고, 그 성격도 교환회를 겸한 양국 산업보건활동 정보교환의 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한

편으로는 이 학술집담회와 교류회의 취지를 영속시키려는 취지로 Working Group Meeting(청년부 교류회)을 만들어 같은 시점,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갖도록 하였다.

올해 일본 Sapporo시에서 개최된 교류회에는 일본측에서 연합회의 이와이(岩井宏方) 부회장과 하라(原敏治) 전무, 집담회의 다찌(館正知) 대표위원, 이누이(乾 修然) 간사, 요코야마(横山博)北海道 노동보건관리협회장 등 13명의 집담회 운영위원, 노동성의 우에다(上用茂)노동위생과장, 산업의학진흥공단의 시이야(椎谷正) 이사장과 이시오가(石岡慎太郎) 전 이사장, 일본 이사회의 이케모리(池森利夫) 상임이사 등 다수 내빈이 참석하였고, 한국측에서는 본인 이외에 학회에 참가한 한국측 운영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학술집담회의 한국측 대표위원인 조규상 전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산업안전보건 선진화기획단의 회의일정 관계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일이었다.

5월 30일 저녁 5시부터 Sapporo Sunplaza 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교류회는 이와이 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한국측 답사와 양측 참석자의 소개로 이어졌다.

교류회의 백미는 산업보건센터에 관한 일본측의 활동보고였으며, 교단이 아닌 가와사끼제철(주) 지바제철소의 현장 산업의로서 뼈가 굵은 쇼지(莊可榮德) 현 지바 산업보건추진센터소장에 의한 직접보고는 이야기의 무게를 한층 더 하였다.

일본의 산업보건추진센터에는 두가지가 있고 모두 1993년에 발족하였다고 하였다. 지역산업보건센터는 50인 미만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병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적합한 산업보건활동의 충실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지역의사회원(주로 산업의 부회원)이고 1993년의 47개소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141개소가 되었으며 장차 370여개소까지 늘린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하나의 유형인 산업보건추진센터는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지도, 정보의 수집제공을 통한 산업보건관계자의 지원, 산업의 등의 연수와 지원,

홍보활동 이외에 지역 산업보건센터의 지원까지 담당한다고 하였다. 담당자는 노동복지공단이 설치하는 노동복지사업법인이고, 1993년에는 16개소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와같은 산업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영세기업 산업보건사업의 추진성, 산업의 변천, 산업보건요원의 육성 지원, 산업의 위상에 관한 반성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이들 여러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산업보건선진화를 기도하는 우리나라로서 또 특히 영세기업의 산업보건사업에 전력투구하려는 우리 협회로서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보고회는 Working Group(청년부) 회원의 합류로 전야제파티로 이어졌다. 이미 열번이나 되는 회동으로 낮이 익을대로 익은 양측 참석자의 환담은 화기애애 할 수 밖에 없었다. 후일에 다찌(館正知) 학술집담회 일본측 대표위원이 지적한 대로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뿐아니라, 서로의 산업보건사업 전개상의 애로와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두나라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진지한 토론이 이곳 저곳에서 벌어졌다.

